

협회News

건의 및 의견제출

협회News

회원News

건교부News

주택산업규제 합리화방안 건의

협회는 지난 4월 4일(월), 산업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주택산업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국내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투기수요 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재건축사업 공급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산업 합리화방안(16건)을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제출하였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등 주택수요 억제조치는 기존 주택시장 거래 동결에 따른 역전세난 여파로 미입주 및 해약사태가 확산되고 이는 다시 건설업체 부도로 이어지고 실거래가에 의한 취·등록세 납부는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거래 중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고제도를 도입하고 충청권 투기과열지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거래계약서 통지가 의무화될 경우에 주택거래신고제는 전면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 후분양제 시행과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같은 일련의 조치는 과도한 중복규제로써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격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와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의 시행으로도 재건축사업의 과열 방지 및 투기억제 효과가 충분하므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후분양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보증회사에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보증료 산정시 토지비를 보증금액에서 제외해 줄 것과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주택사업자가 보존등기시 부담하는 취·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의 비과세 항목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개선 건의

협회는 지난 4월 6일(수), 지난 3. 31일 규제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간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령 개정시 도시개발사업이 주거·상업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및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시

행능력이 떨어지는 주택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시장 질서를 문란시키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도시개발사업은 복합단지 및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단지(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 제외)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파트 분양시 사전예약 실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협회는 지난 4월 20일(수),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로부터 아파트 분양시 사전예약제에 대한 의견조치를 요청 받고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하나,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방 등은 분양초기부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판매전략이 불가피하므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지역조합주택, 재개발·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20세대 미만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지자체간 적용기준이 달라 세대수에 관계없이 공개모집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분양분에 대한 공급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추가로 공급하여야 할 일반분양분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및 제작기준 검토의견 제출

협회는 지난 4월 21일(목), 주택청약자의 분양피해 예방과 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 및 제작기준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제출하였다.

협회는 사이버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비자에게 당해 주택에 대한 분양정보 제공과 홍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기술수준만을 고려한 제작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시의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이 실물 견본주택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입주예정자와의 분쟁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견본주택은 판매촉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설문조사

'주택수요변화와 정책대응방안' 설문조사 실시

협회는 지난 3월 7일부터 주택업계 애로사항의 개선방안 모색과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회원사 임직원 200명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700명을 포함한 총 900명을 대상으로 안양대 고종욱 교수에 의뢰하여 '주택수요변화와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겸하여 실시하였으며 주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사 임직원에게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지 확보·토지이용 및 건설계획·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사업계획승인·주택분양에 이르는 사업단계별 주택업계의 애로사항과 향후 주택경기 전망을 설문하였으며 주택소비자에게는 주택구매 결정요소, 소득계층별·지역별·교육수준별 주택 선호도, 시장진입 장애요인과 향후 주택시장전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결과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수요변화와 정책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각종회의

인터넷청약 활성화 대책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4. 7(목) 10:30, 건교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정 부 : 건교부 주택국장,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택과장
 - 관계기관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담당임원
 - 업 계 : 우리협회(서병두 전무), 대한주택건설협회
- 회의내용 : 인터넷청약 활성화 대책 협의

서울시 동시분양제도 개선 대책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4. 12(화) 16:00, 서울시 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임옥기 과장, 신중수 팀장
 - 시민단체 : 박완기 국장(경제정의실천연합회), 김자혜 사무총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전문가 : 장영희 박사(시정개발연구원), 김희선 전무(부동산114)
- 업계 : 제도1팀장(우리협회), 김범헌 부장(대한주택건설협회)
- 회의내용 : 동시분양제도 폐지 관련 협의

규제개혁관련 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4. 14(목) 14:00, 건교부 소회의실
- 참석자
 - 건교부 : 권도엽 차관보, 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 업계 : 김종철 부회장(협회), 원현수 상무(코오롱건설), 장성각 상무(대우건설), 이정근 상무(현대건설), 김홍배 부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등
- 건의사항
 - 택지의 효율적 공급 및 토지 이용도 제고 방안
 - 주택사업절차 개선 및 주택사업자 부담금 경감 방안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일원화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안 조속시행 건의 등

도시개발법령 개정안 관계전문가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5. 4. 28(목) 14:00,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성남 분당 소재)
- 참석자
 - 정부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제주 담당 사무관 등
 - 관련기관 : 우리협회(제도1팀장),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회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추가: 생산녹지지역(1만㎡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계획수립 대상지역 추가(생산녹지지역)
 - 공유토지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환지방식(집단체비지)에서 임대주택용지 확보 방안 등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및 제작기준 관련 대책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4. 14(목) 15: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업계 : 현대산업개발 등 9개사 담당자
 - 협회 : 제도1팀장 등
- 회의내용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및 제작기준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출

주택정책·제도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4. 27(수) 14:00,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업계 : 주택정책·제도실무위원 및 플러스옵션담당자 등
 - 협회 : 제도1팀장 등
- 회의내용
 - 플러스옵션제 폐지에 따른 분양가격 안정 및 입주자선택권 보호방안 협의

회원News

동부건설, 개발부분 사장에 김용화씨

동부그룹(회장 金俊起)은 동부건설 개발부분 사장에 김용화 전 LG건설 부사장을 선임하는 등 그룹 임원에 대한 인사를 4월 1일자로 단행했다.

김 사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LG건설 주택사업부장을 지낸 바 있다.

동부그룹은 또 하진태 전 대림산업 부사장, 김용식 전 대림산업 상무, 정주섭 전 한진 전무를 동부건설 부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전대진 전 한솔캐피탈 대표를 (주)동부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동부건설(주) 자료제공>



현대건설, 임원 승진 인사 단행

현대건설(사장 李之松)이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 최근의 실적 호조를 가속화하는 등 올 사업목표 달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각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를 발탁, 학력과 무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건설은 해외사업의 전문성과 영업 마인드를 지닌 전문가를 임원으로 발탁, 전진 배치함으로써 특히 해외영업력을 강화토록 했다.

현대건설은 올 1/4분기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어난 651억원을 달성하는 등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준수로운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각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발탁, 최근의 실적 호조를 가속화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계기를 마련, 올 경영실적 달성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상 무 설평국, 이현수, 장인수, 손문영, 최영화, 정구철, 이종열, 김인수, 이호국, 김원복, 강기령, 서장선, 장국주, 권탄걸, 나경준

△상무보 양원훈, 김종현, 전정민, 권오혁, 이 석, 유원우, 이교선, 김형일, 주병기, 김 검, 이원우, 이영중, 임형진, 이화중, 김진국, 최병욱, 한진우, 이병준, 이구호, 마기혁, 박준양, 조정호, 이진구

△상무보대우 오대철, 조동환, 김난동, 손유찬, 김정위, 최중구, 변중선, 강 원, 차동철, 정계섭, 정인선

〈현대건설(주) 자료제공〉

남광토건, 회사CI 아파트 브랜드 단장하고 새 출발



하우스토리 브랜드

회사CI 변경 및 신규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토리' 발표

남광토건(대표: 송시권)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의 CI(corporate identity) 및 '하우스토리(HAUSTORY)' 신규 아파트브랜드를 발표하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송시권 사장은 "안정성과 유연성을 가진 일류건설사를 향한 무한한 잠재력과 고객지향적 기업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회사 CI와 아파트브랜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진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남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의 새로 변경된 CI는 "자연친화적이며 고객지향적인 기업이미지와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의지를 담았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남광토건의 아파트 새 브랜드인 "하우스토리(HAUSTORY)"는 독일어의 집을 뜻하는 'HAUS(하우스)'와 영어의 'STORY(스토리)'을 합성한 조어로서 '집 이야기'라는 뜻이 담겨 있고, 향후 "남광토건이 짓는 아파트는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를 모토로 건축미학과 편리함을 갖춘 '설계가 다른 아파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품차별화를 위해 설계에서부터 환경학, 색채학,

건축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하는 'N솔루션' T/F(TASK FORCE)팀을 만들어 최적의 주거공간 창조를 통한 미래의 주택문화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강한 아파트)와 지능형아파트 인증제도(편리하고 안전한 아파트) 등 설계 및 시공지침을 하나로 통합한 '하우스토리 체크리스트(가칭)'라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 최고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올해 '하우스토리' 브랜드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서울 및 수도권 2,233세대와 지방 1,397세대 총 3,630세대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사업지로는 6월 중 분양 예정인 수원 오목천동의 365여세대를 시작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82세대, 전농동 주상복합 164세대, 남양주시 장현리 860세대, 부천시 송내동 701세대, 광진구 광장동 61세대와 지방 충남 당진에 625세대, 대구 신천동 458세대, 울산 무거동 312세대 등 총 3,630세대를 분양 예정이다. 한편, 남광토건은 오는 4월 말부터 대대적인 신규브랜드 런칭광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주) 자료제공〉

부영, 호치민시에 아파트 3만세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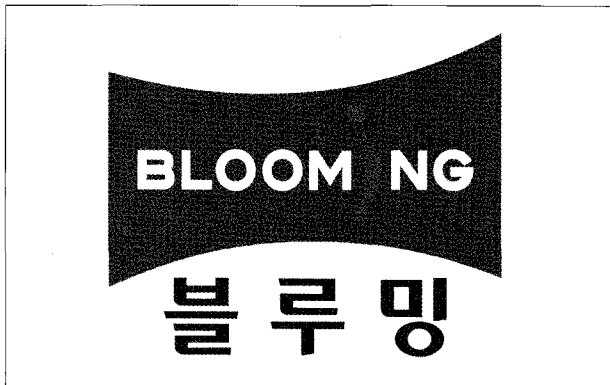


부영·호치민시 양해각서 체결

(주)부영은 3월 3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호치민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저소득층용 아파트 3만세대를 건설하기로 하는 기본내용에 합의하고 호치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내에서 인구(약 700만명)가 가장 많은 도시로 주택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던 터에 이 같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호치민시는 토지를 부영 측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부영은 저소득층을 위한 고층 아파트

(High Rise Low Income People Apartment) 3만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한편 (주)부영은 작년 9월 해외기증사업으로 처음으로 베트남 광남(Quang Nam)성 탐끼(Tam Ky)시에 중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을 건립, 지역 인민위원회에 기부한 바 있다. <(주)부영 자료제공>

벽산건설, '벽산 블루밍' 새로운 브랜드 도입



블루밍로고

벽산건설의 대표이사, 김인상 사장은 5월 3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하며,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및 로고를 소개하였다.

“활짝 필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가진 ‘블루밍’의 발표는 단순한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고객의 생활이 블루밍을 통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하는 마음과 벽산건설의 혁신을 의미합니다”라며, 김인상 사장은 신규 브랜드의 의미 및 사업 전략을 발표하였다.

벽산건설은 기업 이미지 개선 작업을 위해, 전문 브랜드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BI 전략 사전작업을 시행하였다.

시장분석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해 브랜드 파워 성공요인을 분석해 브랜드 시대에 대고객 인지도 제고가 해법이며, BI를 정립함으로써 광고 효율 및 집중력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했다.

화사하고 아름답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은 오래되고 낡은 주거공간을 첨단 기술의 갖춘 디지털 중심지로, 미소가 지어지는 아름다운 집으로, 행복을 만드는 따뜻한 공간으로 사랑과 미래가 활짝 피어나게 하고픈 벽산건설의 열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블루밍의 핵심 포인트는 Concept 아파트, Function 아파트, Fashion 아파트를 통해 실현되는데, Concept 아파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수요자들의 효용가치 측면의 수납공간을 극대화하며, 실용적인 커뮤니티를 반영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고, Function 아파트는 보안강화, 홈네트워크 실현, 에너지 효율 극대화 와 같은

soft 차원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Fashion 아파트는 테마별 단지환경 조성, 아름다운 외부 입면 디자인과 실내인테리어에 품격을 가미함으로써 공동공간이 갖는 장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브랜드가 기업의 가치로 평가 받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통합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존 벽산건설의 정통적, 남성적인 기업 이미지를 벗고 “여성적이며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 출범을 통하여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INNO-Action 마케팅 전략의 실행에 브랜드 출범의 의의가 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 작업과 이미지 개선 작업을 병행하며, 마케팅의 강화로 신상품개발, 수주경쟁력 확대, 분양대금을 대체할 금융상품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반영하고 있다.

<벽산건설(주) 자료제공>

삼성물산, '사랑의 집짓기' 후원



2005 한국사랑의집짓기 기공식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4월 5일(화), 천안 목천읍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 해비타트 현장에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정근모)를 후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이원의 부사장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정근모 이사장, 유영완 천안아산지회 실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천안현장 주택 4동 (16세대)과 마을회관 골조 및 부대공사 시공(3억 4천만원 상당) 후원 제공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00년 Pre-JCWP(지미 카터 특별건축 준비사업)로 진행된 광양 ‘평화를 여는 마을’을 계기로 해비타트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1년 국제해비타트 프로그램 중 하나인 JCWP 2001의 주 파트너사로서 아산 88세대 ‘화합의 마을’ 건축을 시공 후원하였으며, 그 후 2002년 대구 경산 2003년 수

해복구사업이 진행되었던 강릉 해비타트 2004년도 천안 '희망의 마을' 까지 한국해비타트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한국해비타트는 작년까지 국내외 722 세대의 주택을 지어 무주택 영세가정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며, 작년 한해 동안에는 '한국번개건축 2004' 을 진행하여 천안을 포함한 6개지역 60세대에게 소박하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올해 한국 해비타트는 삼성건설의 시공후원으로 진행되는 천안 사업지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전국 6개 현장에서 약 천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총 62세대의 건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자원 봉사자는 4월 중순 해비타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들어가며 선착순 신청자에 한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게 된다. <삼성물산(주) 자료제공>

신동아건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사랑의 쌀 나누기' 기증식

신동아건설(주)은 4월 9일(토) 오후 2시에 대구 대곡 '신동아 파밀리에' 주택전시관에서 대구 달성군 소재 '희락의 집', '사랑의 집', '셋들살터', '실로암 사랑의 집'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주택전시관 개관 시 실내·외에 진열해 놓는 화환에 들어 가는 소모성 경비를 줄여 분양 사업 지역의 불우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신동아건설(주)이 신광웅 사장 취임 이래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나눔실천운동'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졌다' 고 신동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행사 후에는 신동아건설 분양관련 업무 부서원들이 '희락의 집' 을 방문, 입소 아동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으

며, 생활용품 및 학용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신동아건설(주)은 2005년도 회사 경영방침으로 '봉사와 신뢰' 를 정해 놓은 바 있으며, '나눔실천운동' 은 현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동아건설(주)은 임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러한 행사들이 일시적인 실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동아건설(주) 자료제공>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1.5조원 투자 유치

- ABN암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 중앙공원, 컨벤션센터, 도로 등 공공 인프라 개발에 박차

포스코건설(사장 한수양)과 미국 계열사의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C: New Songdo City Development, LLC)는 2일 ABN암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국제업무단지개발 투자자금 1조 5천억원 을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파이낸싱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해 세계적 투자은행인 ABN 암로가 주관사 은행으로 나서 자본조달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들은 5월말까지 신디케이션 방식을 통해 국내외 20~30여 개의 은행을 참여시키고 6월말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달되는 1조 5천억원은 중앙공원, 컨벤션센터, 도로 및 수로, 국제학교 및 병원 등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싱의 주간사를 맡은 ABN 암로은행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며, 현재 최고의 개발팀들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ABN 암로은행의 투자참여는 국내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인 계열사가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건설을 목표로 송도지역 매립지 167만평에 2014년까지 200억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주)포스코건설 자료제공>

현대건설, 쿠웨이트 에탄회수처리시설 공사 수주

미화 3억9,700만달러 규모... 올 해외에서 20억달러 수주목표 달성 박차

현대건설은 지난 3월 24일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Kuwait



계약서명식

National Petroleum Company)로부터 미화 3억9,700만 달러(한화 약 4,천억원)에 수주한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New Ethane Recovery Plant)의 계약 서명식을 5월 15일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에서 가졌다.

이날 계약식은 이지송 사장과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 정유회사 알 루사이드(Al-Ru shaid) 회장 등 양측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양사는 동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1년 10억달러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 가스 처리시설 2·3단계 공사에 이어, 후속 공사인 16억달러 규모의 사우스파 4·5단계 공사를 최근 성공적으로 준공하는 등 대규모 해외공사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공사 건설 위주였던 쿠웨이트 시장에서 이번 에탄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쿠웨이트 지역 Oil & Gas 분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쿠웨이트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는 일산(日産) 5,273톤의 에탄을 생산하는 대형 플랜트 설비공사로 쿠웨이트 남동부 미나 알 아마디(Mina Al Ahmadi) 지역에 건립되며, 공사 기간은 약 37개월로, 오는 200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외에도 쿠웨이트에서 원유 수출용 항만 추가공사 및 4개소 변전소 공사 수주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어 쿠웨이트에서의 공사 수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해외에서 20억달러 규모의 공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주) 자료제공>

현진종합건설, 사업영역 다각화 및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주)현진으로 상호변경

HYUNJIN (주)현진

(주)현진 로고

올해 9,000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주)현진종합건설이 지난 4월 15일자로 (주)현진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현진은 지난 1984년 (주)현진종합건설을 설립한 이래, 공격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꾸준한 매출성장세를 보이며 (주)현진에버빌, (주)현진캐피탈, (주)에버빌리조트 등 6개의 계열사를 지닌 기업체로 성장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건설한 업체이다.

(주)현진은 지난 3월 해외개발팀을 신설하여 일본 동경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금명간 중국과 베트남 지사설립을 검토하는 등 해외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의 활발한 수주 활동을 위하여 대구에 영남지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한편 (주)현진의 홍용기 이사는 상호변경 배경에 대해 “회사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외에 리조트사업, 금융사업, 복지사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다각화 및 해외사업, SOC사업, 턴키공사 등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약을 다지는 의미에서(주)현진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교부News

인사발령

<2005년 4월 1일자 : 승진>

○ 행정사무관

주택국 주거환경과 행정주사 반석내

건설교통부 행정주사 표명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행정주사 노석근

○ 토목사무관

도시국 도시관리과 토목주사 허용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토목주사 강인서
건설교통부 토목주사 김승훈

〈2005년 4월 1일자 : 대우공무원〉

○ 5급(행정사무관)대우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담당관실 행정주사 이희성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행정주사 최병호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 행정주사 이호재

○ 6급(행정주사)대우

건설경제심의관실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 행정주사보 송주화
도시국 도시관리과 행정주사보 이종선

〈2005년 4월 6일자 : 전보〉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차상헌 : 건설경제심의관실 해외건설·협력담당관실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기계사무관 이백연 :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지원담당관실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완국 :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노재옥 : 토지국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 윤성배 : 토지국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 김동익 : 도시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안진형 : 도시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부 건축사무관 문석준 : 도시국 건축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태경 : 신도시기획단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도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년 4월 8일자 : 파견〉

건설교통부 서기관 안병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실무지원단(개발과장)
주택국 공공주택과 김형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

〈2005년 4월 11일자 : 전보〉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양정현 :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5년 4월 14일자 : 직위승진〉

공보관(직무대리) 부이사관 이재홍 : 공보관
건설경제심의관(직무대리) 부이사관 한만희 : 건설경제심의관
주택국장(직무대리) 부이사관 서종대 : 주택국장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직무대리) 서기관 정병윤 :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국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장(직무대리) 서기관 박선희 : 국

토정책국 수도권계획과장

토지국 토지관리과장(직무대리) 서기관 고철진 : 토지국 토지관리과장

〈2005년 4월 15일자〉

신도시기획단 시설서기관 박희성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2005년 4월 15일자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건설교통부(제주도) 지방행정사무관 고성보 :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005년 4월 18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보 최효진 :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주사 황병철 :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행정주사 심인보 : 주택국 주택정책과
건설교통부 행정주사 전운수 :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건축주사보 엄성열 :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기능8급(사무원) 배정진 :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토목주사 김상규 :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행정주사 김성호 :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주사 김은영 :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토목주사보 이상필 :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행정주사 연제익 :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지원과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토목주사 양성모 : 복합도시기획단 기업도시지원과
건설교통부 토목주사 이상규 : 복합도시기획단 신도시개발과
건설교통부 행정주사보 윤정호 : 복합도시기획단 신도시개발과
〈2005년 4월 18일자 : 과장급〉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박상규 : 복합도시기획단(단장 직무대리)
건설교통부 서기관 권오열 : 복합도시기획단 복합도시정책과장

건설교통부 서기관 김정렬 : 복합도시계획단 기업도시기획과(과장 직무대리)

건설교통부 서기관 박명식 : 복합도시계획단 신도시개발과(과장 직무대리)

〈2005년 4월 18일자 : 계장급〉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사무관 김경수 : 토지국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김용옥 : 토지국

주택국 주거환경과 행정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송영환 :

주택국 주거환경과

주택국 주거복지과 행정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이춘섭 :

주택국 주거복지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안진형 : 도시국 도시관리과

건설교통부 건축사무관 문석준 : 도시국 건축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동호 : 복합도시계획관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종진 : 복합도시계획관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이명섭 : 복합도시계획관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토목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박훈식 : 복합도시기획관 복합도시정책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태경 : 복합도시계획관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건축사무관 백원국 : 복합도시계획관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토목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박선규 : 복합도시기획관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 이필환 : 복합도시계획관 기업도시지원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표명덕 : 복합도시계획관 기업도시기획과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김영길 : 복합도시계획관 신도시개발과

건설교통부 건축사무관 김준연 : 복합도시계획관 신도시개발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사무관 박만수 : 복합도시계획관 신도시개발과

건설교통부 토목사무관 최승환 : 복합도시계획관 신도시개발과

〈2005년 4월 19일자 : 국·과장급〉

건설교통부 부이사관 박상규 : 복합도시계획단(단장 직무대리)

건설교통부 서기관 권오열 : 복합도시계획단 복합도시정책과장

건설교통부 서기관 김정렬 : 복합도시계획단 기획도시기획과(과장 직무대리)

건설교통부 서기관 박명식 : 복합도시계획단 신도시개발과장

〈2005년 4월 20일자〉

국무조정실 서기관 안충환 : 복합도시계획단 기업도시지원과(과장 직무대리)

주택국 주택정책과 서기관 양준승 : 국무조정실

〈2005년 4월 21일자 : 6급승진〉

주택국 주거환경과 건축주사보 이승은

건설지원담당관실 행정주사보 박정환

복합도시계획단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주사보 엄성열

〈2005년 4월 30일자〉

주택국 주거환경과 건축사무관 김철중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도시국 건축과 건축사무관 김태곤 : 주택국 주거환경과

도시국 도시정책과 건축주사(5급승진임용대상자) 남창석 :

도시국 건축과 ☺